

고마미야 신사: ‘인요세키’와 ‘제니이시’

고마미야 신사의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덴 뒤편에 있는 절벽은 예로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의 일부를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 바라보면 남성의 생식기(양)와 여성의 생식기(음)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인요세키(음양석)’라고 불립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이 같은 모양의 바위가 순산과 오곡 풍양, 인연 맺기 등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바위 앞의 땅속에서 동전 모양의 작은 돌(제니이시)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은 돌들은 수 세기 전, 자녀와 관련해서 기도를 올린 참배객들이 남겼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도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동전 모양의 돌을 신에게 바쳤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마미야 신사에서는 2018년에 제니이시가 발견된 후부터 인요세키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바치는 공물용으로 제니이시의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